

2015년 5월 25일 오늘의 아침편지

산다는 것  
生きるということ

산다는 것  
生きるということ

지금 산다는 것  
今生きるということ

지금 멀리서 개가 짖는다는 것  
今遠くで、再縁を作ること

지금 지구가 돈다는 것  
今地球が回ること

지금 어디선가 갓난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  
今どこかで、赤ちゃんの最初の泣き声が聞こえること

지금 어디선가 병사가 다친다는 것  
今どこかで、兵士が負傷したこと

지금 그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今、ブランコが揺れていること

지금 지금이 지나가고 있는 것  
今、今が過ぎていること

- 다니카와 슌타로의 시 〈살다〉 중에서 -  
- 谷川俊太郎の詩〈生きる〉より -

\* 산다는 것은  
\* 生きるということとは

지금 이 순간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今この瞬間生き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문제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問題は今この瞬間をどう生きるかです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幸せに、健康にちゃんと生きるのです

내 마음에 사랑과 평화가 넘치면  
私の心に愛と平和が溢れば

더 잘 사는 것입니다.  
さらにちゃんと生きるのです

개가 (改嫁)  
[명사] 改嫁; 再嫁; 再縁.  
갓난아기  
[명사] 赤ちゃんの愛称.  
다치다  
[자동사] [타동사] 傷つく; けがする; 痛める.

20150525.txt

ぶらんこが揺れる 발음 재생  
그네가 흔들리다

2015년 5월 26일 오늘의 아침편지

새날  
新しい日

모질게 다시 마음먹고 눈뜨는 날  
耐えて決心して、目覚める日

온갖 잡투성이 단칼에 베어버리는 날  
ありとあらゆるつまらないことだらけを一太刀で切ってしまう日

어려운 말 쓰지 않아도 시가 되는 날  
難しい言葉を使わなくても、詩になる日

말과 글이 하나 되고  
言葉と文章がひとつになって

글과 삶이 하나 되어  
文字と人生がひとつになって

꽃망을 터뜨리는 날  
つぼみをほころばせる日

온전한 나를 찾는 날  
完全な私を探す日

죽어 다시 사는 날  
心でもう一度生きる日

- 여태전의 시집 《꿈이 하나 있습니다》에 실린  
- ヨ・テジョンの詩集〈夢がひとつあります〉に掲載された

시 〈새날〉 중에서 -  
詩 〈新しい日〉より -

\* 하루하루가  
\* 一日一日が

늘 새로운 새날입니다.  
ずっと新しい日です

꿈을 꾸는 것도 새날입니다.  
夢を見ることも新しい日です

꿈을 이루는 것도 새날입니다.  
夢を叶えることも新しい日です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도, 넘어졌다 일어나  
滑って転ぶことも、倒れて起きて

다시 걷는 것도 새날입니다.  
また歩くことも新しい日です

늘 새날입니다.  
常に新しい日です

모질다

[형용사]

(잔인) 残忍だ; 惨い.

(배겨 내다) 根気がある; 粘り強い; (辛いことに)よく耐(...

(정도가 세다) (程度が)激しい; 厳しい.

눈뜨다

[자동사]

目覚める.

(잠을 깬) (眠りから)覚める.

(깨닫다) 目を覚ます; 悟るようになる.

꽃망울

[명사] 花のつぼみ. [준말] 망울.

터뜨리다

[타동사] 破裂させる; 爆発させる.

온갖

[관형사] (ありと)あらゆる; すべての; 万の[아어(雅語)].

잡- (雜)

[접두사]

雜; 雑多の意.

有用でない·つまらないの意.

-투성이

[접미사] (名詞のあとに付いて) ...まみれ; ...だらけ; ...みどろ.

베다2

[타동사]

(끊다·자르다) (刃物で)切る(\*사람은 '斬る', 나무는 '伐る...)

(상처를 내다) (刃物で)傷つける; (不注意などで)切...

온전하다 (穩全—)

[형용사] 完全だ; 無傷だ; 傷がない; まともだ; 全し; 全(ま...

2015년 5월 27일 오늘의 아침편지

J를 만난 날  
Jに会った日

돌이켜 보면  
振り返ってみると

내 인생은 축복이었다.  
私の人生は祝福だった

물론 힘들고 아팠던 순간도 많았지만,  
もちろん辛く、痛かった瞬間も多かったが

그 순간들이 있었기에 내가 원하는 삶을  
その瞬間があったから、私が望む人生を

살 수 있었다. 날 그토록 사랑해준 사람들이  
生きることができた。私をあれほど愛してくれた人が

있어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 나눌 수  
いて、人生の大切な瞬間をともに分けることが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できたから、どれだけ感謝のことか

그리고 보니 J를 만났던 것도  
そうしてみると、Jに会ったことも

축복이었다.  
祝福だった

- 김수영의 《당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중에서 -  
- キム・スヨンの〈あなたの愛は何か〉より -

\* 누구나 한 번쯤은 J를 만납니다.  
\* 誰でも、一度くらいはJに会います。

어느 날 운명처럼 선물처럼 내게 다가와  
ある日運命のように、贈り物のように私に近づいて

사랑을 알게 해준 감사와 축복의 사람입니다.  
愛をわかるようにした感謝と祝福の人です。

J의 아픔, J의 상처가 내 안에 깊이 들어와 하나가  
Jの痛み、Jの傷が私の中に深く入って一つに

되는 순간, 나의 아픔과 상처도 녹아내립니다.  
なる瞬間、私の痛みと傷も溶けます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新しい世界が開かれます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新しい人生が開かれます

20150527. txt

돌이키다

[타동사]

振り返る.

(고개를) (首を) 振り向く; 顧みる.

(과거를) 顧みる; 反省する.

그토록

[부사] (그러하도록의 준말)それほど; あれほど; そんなに; さしも; さほど.

2015년 5월 28일 오늘의 아침편지

온도, 사랑의 체온  
温度、愛の体温

온도.  
温度

꼭 사랑이 필요한 건 아니다.  
必ず愛が必要なことはない

단지 체온이 필요한 거지.  
ただ、体温が必要なんだろう

누구라도 상관없는 체온 말이다.  
誰でも構わない体温だ

- 감성현의 《그녀와 그, 영원히 넘을 수 없는 벽》중에서 -  
- キム・ソンヒョンの〈彼女と枯れ永遠に残せない壁〉より -

\* 날씨가 차가우면 옷을 입습니다.  
\* 天気が、冷たいと服を着ます

그래도 추우면 더 두꺼운 옷을 입습니다.  
それでも寒ければ、さらに厚い服を着ます

'마음의 옷'으로 체온을 높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心の服'で体温を高めるのが愛です

사랑하면 따뜻해집니다.  
愛すれば温かくなります

2015년 5월 29일 오늘의 아침편지

인생의 명답  
人生の名答

“짐에는  
”荷物には

버려야 할 짐과  
捨てなければならぬ荷物と

지고 가야 할 짐이 있지요.  
背負わなければならぬ荷物があるでしょう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자신이  
ひたすら捨てる人は、自分が

져야 할 짐을 스스로 기꺼이 지고 가지요.  
背負わなければならぬ荷物を、自ら喜んで背負っているでしょう

쓸데없는 짐은 버리고 자신의 짐을 지고 간다면  
無駄な荷物を捨てて、自分の荷物を背負っていけば

가야 할 길을 찾은 거지요. 인생의 명답을  
行くべき道を見つけたのでしょ。人生の名答を

찾는 길이란 그런 겁니다.”  
さがす道とはそういうものです”

- 김홍신의 《단 한 번의 사랑》 중에서 -  
- キム・フンシンの〈ただ1度の愛〉より -

\* 인생의 명답!  
\* 人生の名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探すのが簡単ではありません

그러나 가장 단순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しかし、一番単純なところに隠れています

버릴 짐은 버리고 질 짐만 지고 가는 것,  
捨てる荷物を捨てて、背負う荷物だけ背負っていくこと

그것이 인생의 명답의 하나입니다.  
それが、人生の名答の一つです

그래야 먼 길을 갈 수 있습니다.  
そうしてこそ、遠い道を歩くことができます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질  
他人の荷物を変えるにもつ

여력도 생깁니다.  
余力もできます



20150529.txt

간절히

[부사] 切に; ひとえに; ひたすら; 心から.

쓸데없다

[형용사] 要らない; 無用だ; 役に立たない; 無駄だ.

2015년 5월 30일 아침편지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이호진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イ・ヒョジン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소중한 기억들 때문에...  
大切な記憶のために...

다시 소중한 것으로  
もう一度大切なことで

다가와 내게 말을 건다.  
近づいて私に言葉をかける

예전에 내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느꼈던 것들이다.  
昔、私が幼い少年だったときに感じたことだ

나비 채를 손에 들고 돌아다니던 소년 시절, 양철로  
蝶の棒を手にもってまわった少年の時節、ブリキで

만든 식물 채집통, 부모님과 함께했던 산책, 여동생의  
作った食物胴乱、両親と一緒にした散策、妹の

밀짚모자 위에 꽃혔던 달구지 국화가 생각난다.  
麦わら帽子の上に花咲いた、菊が思い出される

모든 것들을 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싶다.  
すべてのことを見て、感じて、においをかぎたい

모든 것을 맛보고 싶다.  
すべてのことを味わいたい

- 헤르만 헤세의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 중에서 -  
- ヘルマン・ヘッセの〈庭園で過ごす時間〉より -

\* 자신에게 소중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 自分に大切だった、瞬間があります

그냥 스쳐보냈던 것들이 특별한 것으로 다가올  
ただ、過ぎ去ったことが特別なこととして近づいてくる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있기에 지금 이 순간,  
時があります。これがあるから、今この瞬間

충만하게 채워져 있음을 느낍니다. 힘들 때마다  
十分に満たされれているのを感じます。辛い時ごとに

조용히 다가와 나를 쓰다듬어 주는 소중한 기억들,  
静かに近づいて、私を撫でてくれる大切な記憶

그 기억들 때문에 내 가슴은 다시 뛰고  
その記憶から、私の心はもう一度走って

생기가 돌니다.  
生気が回ります。

예전

[명사] 昔; 一昔; ずっと以前. (=옛적)

나비2

[명사][곤충] チョウ(蝶); チョウチョウ.

ブリキ缶 발음 재생 (표제어:통)

양철통

胴乱 발음 재생 (표제어:식물 채집)

식물 채집통

밀짚모자

[명사] 麦わら帽子; 麦わら帽. (=맥고(麦藁)모자)

달구지

[명사] 牛車; 荷車.

스치다

[자동사][타동사]

(닿을 듯 지나감) すれすれに通り過ぎる; かすめる; かする; 触れ...

(생각·느낌 등이) (考え·感じなどが) かすめる; よぎる.

쓰다듬다

[타동사]

(손으로) (手で)なでる; さする; なでさする.

(달래다) なだめる; すかす.